

브라질 전자산업 동향

1. 경제동향

구 분	94	95	96
GDP 성장률	5.4	5.0	4.0
소비자물가지수	2,669	150	20
산업생산	10.2	5.0	6.0

'94년 상반기 산업생산은 4.7% 증가되었다. 이 중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증가율이 각각 19%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운송분야 역시 빠른속도로 증가하였는데 16%의 성장율을 기록하였다.

'94년 7월 산업생산 평균가동율은 80%로 지난 5년동안에 최고의 수치이다. 반면 이같은 상황은 공급초과로 이어져, 특히 비내구성 가전제품의 경우, 수요증가를 넘어서고 있다. '94년 산업생산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생산은 '95년에는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전자산업 동향

지난 수년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던 브라질의 전자산업은 현재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92년에 13%나 감소되었던 생산이 '93년에는 9% 이상 증가되었으며 '94년에는 13% 이상 증가되었다. 전자제품이나 전자부품이 브라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여 실제로 계속 감소되어 왔다. 이를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7.7%, '93년 7.3%, 그리고 '94년에는 겨우 6.5%이다. 이는 내수시장의 활황에 따라 내수 소비가 수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에 수입은 관세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급속도로 증가되었다. '92년도 수입은 22억 6,400만불로 전체시장의 18%를 차지하였으며, '93년에는 이러한 수입이 더욱 증가되어 30억 5,500만불로 전체시장의 2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94년에는 41억 6,500만불로 24%의 점유비를 기록하였다.

브라질 전자산업 중 최대의 분야는 정보산업(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알려져있다.

컴퓨터하드웨어 생산은 '94년의 경우 22% 이상 증가되어 전체생

산중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수입의 경우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구매증대에 따라 27%나 증가 되었다. 브라질이 컴퓨터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장벽기초를 유지했던 '92년 10월까지 브라질의 컴퓨터 내수시장은 브라질 국산제품의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로 인해 미미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수입이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메이커들에 의해 생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브라질정부의 컴퓨터 분야에 대한 정책은 이미 브라질 기업들이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즉, 생산과 기술에 있어서의 완전한 자급자족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독립과 생산설비의 현대화를 통해 생산을 증가시킴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좋은 제품을 내수시장에 공급하며 이를통해 브라질기업들이 보다 큰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외국기업들의 브라질 컴퓨터시장에 대한 투자여건은 아직 여러가

지 문제점들이 남아있으나 현재는 을 포함하여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다. 외국기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수입 등

전자부품에 대한 관세도 컴퓨터 산업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많이 낮아진 상태이다.

브라질 전자산업 동향과 전망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4		1995		1996	
	생 산	시 장	생 산	시 장	생 산	시 장
전 자 산 업 계	13,747	17,024	13,605	17,592	14,460	19,137
산업용기기소계	8,726	10,773	8,548	11,155	8,529	12,236
정 보 기 기	5,400	6,259	5,238	6,384	5,762	7,150
사 무 기 기	291	357	276	368	279	382
계측및제어기기	700	1,060	714	1,145	743	1,236
의료및산업전자	235	371	243	393	258	421
정보통신기기	2,100	2,726	2,077	2,865	2,156	3,047
가정용기기소계	2,496	2,443	2,481	2,565	2,584	2,757
영 상 기 기	1,505	1,598	1,535	1,678	1,627	1,812
칼 라 T V	1,200	1,252	1,227	1,321	1,303	1,434
흑백 T V	20	25	16	22	13	20
비디오레코드	230	257	235	266	249	284
비디오카메라등	55	64	58	68	63	75
음 향 기 기	835	657	793	690	801	731
라 디 오 등	750	523	713	547	721	578
테이프레코더데크	40	43	37	45	37	48
레코드플레이어	3	4	3	4	2	4
C D P	42	87	40	93	41	101
기 타	156	188	153	197	156	213
전자부품소계	2,525	3,808	2,576	3,872	2,679	4,144
능 동 부 품	992	1,699	1,012	1,784	1,052	1,962
Tube 등	292	462	294	469	301	498
개 별 반 도 체	120	217	120	224	122	242
I C 등	580	1,020	598	1,092	629	1,223
수 동 부 품	863	983	880	973	915	1,022
콘 덴 서	120	166	121	166	124	175
저 항 기	71	94	70	91	71	94
코 닥 터	230	258	235	256	244	269
트랜스포머및기타	138	82	143	81	151	83
릴 레 이	28	47	28	47	29	49
스 위 치	46	44	47	43	50	44
P C B	230	292	236	291	247	307
기 타	670	1,126	683	1,115	711	1,159

브라질의 컴퓨터시장은 세계 10대 컴퓨터 시장중의 하나로 랭크되어 있으며 남미에서는 최대의 시장이다.

1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브라질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산업은 Cobra Computadorase Sistemas Brasileiros라는 국영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반면에 외국기업들로는 IBM do Brasil, HP do Brasil, 그리고 최근에 오픈한 Compaq Computers가 브라질 컴퓨터시장을 대표하고 있다. '94년의 경우 전체 전자제품 생산의 18% 가량이 가전제품이었는데, 이러한 가전제품 생산은 '93년 14%, '94년 10%로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Sony Brasil은 가전제품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94년도에 800만불을 투자했다고 발표했다.

전자제품의 생산증가로 인해 부품시장 역시 커져 가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 부품생산 성장율은 '93년 4.9%, '94년 7.6%임에 비해 부품수입 증가율은 '93년 53%, '94년 38%였다.

3. 업계동향

- AT & T Wireless사와 브라

주)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1996. Vol.II

질은행인 Bradesco, 그리고 미디어 그룹인 Organizacoes Globo사는 브라질에서 셀룰라 폰서비스 사업을 하기위해 합작기업을 만들었으며, 이 합작기업에 향후 5년간 10억불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 세계적인 가전제품 메이커인 Electrolux사는 브라질 가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브라질의 2대 가전 제품 제조업체인 Refripar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이 스웨덴의

Electrolux사는 Umuarama사로 부터 3억 5천만불에 Refripar사의 지분 41%를 매입하였다.

— 삼성은 3,200만불을 투자하여 브라질의 아마존에 있는 Manaus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 애플컴퓨터사는 '95년 상반기중에 브라질에 현지법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 Siemens Plessey Controls사는 브라질의 교통관제시스템 공급권을

따내기 위해 컨소시엄을 유도하고 있다.

— Gtech사는 Racimec에 1,400만불을 투자함으로 브라질 시장에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Alcatel사는 브라질 통신시장 자유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 IBM사는 '95년 중에 브라질에 8,000만불에서 1억불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다.

'95 주요 국가·업체별 반도체 매출' 분석

95년 세계 반도체시장이 총 1천4백93억달러를 넘어서는데 최대 공급국은 미국이었고, 인텔과 삼성전자는 각각 마이크로프로세서와 D램 분야에서 대표적인 특화형 기업으로 꼽혔다.

데이터퀘스트 및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인텔(1백31억7천2백만달러)·모토롤러(84억5천2백만달러)·TI(78억9천1백만달러) 등을 필두로 한 미국이 총 5백94억8천9백만달러 상당을 출하해 전년에 이어 여전히 반도체 1위국을 지켰다.

NEC(1백11억8천4백만달러)·도시바(1백억3백만달러) 등이 선전한 일본은 5백92억4천3백만달러 상당을 출하,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고 삼성(83억2천9백만달러) 등 반도체 3사의 약진이 두드러졌던 우리나라는 1백61억5천만달러로 3위를 지켰다.

국가별 반도체 출하액을 종류별로 보면 미국은 MOS마이크로 제품이 40.7%를 차지,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MOS메모리(22.9%)·MOS로직(15.4%) 등의 구성비를 보였고, 일본은 MOS메모리(40.6%)·MOS로

직(16/1%)·HOS마이크로(13.7%)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국의 반도체 매출이 안정적인 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MOS메모리(91%)·MIS마이크로(0.9%)·MOS로직(2.7%) 등으로 거의 대부분을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구조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주요업체별 매출구조를 보면 인텔이 전체매출의 94.1%를 MOS마이크로 제품에, 삼성전자는 90%를 MOS메모리 제품에 의존, 대표적인 특화형 기업으로 지목됐다.